

해외 시장으로 판로 지도 넓히는 'K-조달' 2026년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상담회 개최

- UNDP·UNICEF 등 국제기구 담당자, 해외투자사업 전문가 초청 설명회 및 상담 진행
- 국내기업 400개사, 해외바이어 80개사 참여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KOPPEX 2026)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중동 지역 정세 변화 등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국내 조달기업 400여 개사와 바이어 80여 개사가 상담에 참여하였으며, 대만, UAE 등 8개국 바이어와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사는 해외바이어와 국내 기업이 전시 부스에서 직접 만나 제품을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상담 과정에서 관심을 보인 바이어에 대해서는 기업 생산시설 방문 등 후속 미팅을 연계하여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먼저, IPPW(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가한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부스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알리는 기회가 마련됐다.

또한, UNDP, UNICEF, UNIDO 등 국제기구와 해외조달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제조달시장 동향과 입찰 참여 절차 등을 안내했다. 유엔 조달 담당자와의 세미나와 개별 상담을 통해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실무상담과 기업별 맞춤 자문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금융·인증·통관·물류 등 수출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KOTRA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조달청은 행사 이후에도 해외 바이어와 기업 간 후속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담 결과가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중동 상황 등 어려운 통상환경에서 조달기업에 힘이 되기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기회를 부여하는 등 시장 다변화 및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 해외진출 애로 해소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장	김혜경 (042-724-7554)
		담당자	사무관	이대권 (042-724-7521)